

민주 비명계, '반쪽 인적쇄신' 반발

사무총장 유임에 '탕평 인사' 로 보기 어려워

'이재명 사퇴론' 다시 고개... "이대로 총선 못치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 내홍을 수습하고자 인적 쇄신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반쪽 탕평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핵심 교체 당직으로 거론됐던 사무총장은 유임됐고, 다른 인사 명단을 봐도 '탕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신임 지방직 최고위원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다. 또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민석 의원을 뽑았다.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맡기로 했다. 디지털전략사 무부총장에는 박상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변인단도 싹 바뀐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과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난 자리는 권철승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메꾼다. 기존 박성준·한병수

대변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당직 개편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더미래는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흔들리던 당 분위기를 다잡고자 전면적 인적 쇄신을 제안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당직 개편 내용을 소개하면서 "통합과 탕평, 안정의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실제로 이번 당직 개편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지도부를 여러 계파를 아우를 수 있도록 개설했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7인회 소속 김남국·김병욱·문진석 의원은 모두 교체됐다. 민지라는 SK계(정세균계)인 김성주 의원과 친문재인

(친문계인 한병도·권철승 의원 등으로 채워졌다. 다만 내년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나아가 비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탕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핵심적인 자리를 바꾸지 않은 것"이라며 "정책위의장도 비명계라 볼 수는 없고, 나머지는 중도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송갑석 의원 한 명을 끼워 넣는다고 크게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사무총장 정도 바뀌어야 이 대표도 뭔가 해보려고 하나 보다는 반응이 나올 텐데, 이번 인선 발표로는 당 내용이 불합되는 정도의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누가 바

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 대표를 보고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대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퇴론'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명계는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이 대표 체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 변화하기 위해 교체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방탄장갑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했다"며 "탕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탄장갑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인사를 보면 이런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방탄장갑을 강화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방탄장갑으로 가서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고 이대로 총선을 못 치른다"며 "결국 이 대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 현장간담회

민주 김윤덕 의원, 내달부터 연속으로 열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 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집중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라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과 과밀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체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지킴이 발전 등 3대

추진전략)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0일 민성욱·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문체부 전병국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완주 화산면 주민 숙원 과제 해결'

민주 안호영 의원, 원승저수지 신설 등 국비 230억 확보



완주군 화산면에 원승저수지 등이 신설되어 가뭄에 고통받던 화산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 받게 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27일 '완주군 원승지구(화산면)가 2023년 농림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30억원(전액국비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원승지구(화산면)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133ha 농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보강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 및 보강하게 된다. 원승저수지가 신설되고, 춘산저

수지는 제방 승상(높이)이 시행된다. 사업 위치는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성북리가 포함될 예정이다. 완주군 화산면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와 농림부,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원승저수지 신설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았다. 안호영 의원은 "원승저수지 신설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화산면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사업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주민들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비 23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연구원, 14개 시군

고향사랑기부 동참 호소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를 위해 27일 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및 응원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및 지역활력이 감소하고 있는 도내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마중물로 도민 및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그간 전라북도와 많은 고민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 및 운영, 확대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전북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김재훈 기자

박지원 고문, 전주를 재선거 민주 탈당 후보 지지에 '시끌'

"민주당 무공천 결단에 정면 배치"

이덕춘 변호사, "무소속 후보 지지 발언,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것"

"박지원 고문님! 이쯤 되면 정계 은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휴일 전주를 찾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전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계 은퇴 주장이 나오며 지역 정가가 시끌거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주를 경선에 나선바 있는 이덕춘 변호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고문은 탈당 후 무소속 후보 지지 유세를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인 26일 박지원 고문이 전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입정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 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이는 지난해 12월12일 민주당의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에 불복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당의 고문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을 국민들 앞에



이덕춘 변호사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언행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자리에 오기 전 많은 분들이 당의 고문의 언행에 대해 평가하는 맞는 것이냐고 걱정을 해 주셨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말하려한다"라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지도자로 자리잡는 사회 이렇게 되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박지원 고문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고 수위를 높였다. 한편 박지원 고문은 전날 "전주의 많은 현안이 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과 함께 이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입정명 후보가 당선돼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번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입정명, 김광중, 안해욱,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뉴스1

'백문이 불여일견'... 도의회 교육위, 뉴질랜드 해외연수

'유보통합'·'에듀테크' 선도 도입 국가서 적극 추진... 교육위, 정책 벤치마킹 나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27일부터 9일간 뉴질랜드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한다. 연수 국가로 선정된 뉴질랜드는 '유보통합'과 '에듀테크'를 선도적으로 도입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유보통합은 한국처럼 법적 체계를 통해 유보통합 진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단체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뉴질랜드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총괄·시행 중이다. 이에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과 비슷해 유보통합 대상 연령, 시설, 기관 유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충돌 등을 벤치마킹하는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교육위 소속 위원들은 이번 연수에서 유보통합을 아동에게 가장 유

리한 방향으로 통합하는 과정과 교사의 질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사 교육 기간과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현재 한국 유보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교사 자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도 통합 이전 유치원 교사는 2년, 보육종사자는 1년이었던 교사 교육 기간을 모두 3년으로 통합했는데 이를 위해 통합 초기 교사를 위한 장학금과 교사 및 소속 기관을 위한 지원금 등을 제공해 점진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학교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돼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추세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이

를 반영·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명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는 단순히 학생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도내 학생들이 디지털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의 실제 교과과정에 디지털 툴을 활용한 학습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에듀테크 시대에 우리 전북교육도 이에 발맞춘 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 연수가 질 높은 전북교육 시스템 마련에 한 몫이 되는 뜻깊은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Seohak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